



뉴 가자 모놀로그 2024

한국어 대본



팔레스타인 아슈타르 극장

Sunrise Building 10 Al Irsal Street Ramallah - Palestine

+970-2-2980037

info@ashtar-theatre.org

뉴 가자 모놀로그 텍스트 소개 2024

여기 소개되는 새로 쓰인 독백들은 가자 지구에서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겪고 있는 가자 주민들의 생생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자 모놀로그 작가들로 알려진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들 중 다수가 십 대 시절에 쓴 글을 통해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글은 전 세계 62개가 넘는 나라에서, 극장과 대학부터 커피숍과 거리, 병원과 감옥에 이르기까지 수백개의 공간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점령하 자행된 집단학살적 전쟁 속 인간 감정의 회복력, 고통, 그리고 복합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목소리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집, 인간다움의 본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깊은 용기, 사랑, 심지어 기쁨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영혼이 빛과 의미를 찾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새로운 증언들을 통해 여러분은 폭격과 강제 이주, 비인간적인 봉쇄 아래 살아가는 잔혹한 고난으로 산산조각 난 삶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실과 두려움, 희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절멸하는 전쟁이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가려버리는 세계에서 안전과 평화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들은 단순한 피해자도, 수동적인 생존자도 아닙니다. 매 순간 생명이 위협당하더라도, 그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습니다.

뉴 가자 모놀로그와 오리지널 가자 모놀로그를 연결 지음으로써 역사적 깊이를 더하고, 가자 주민들의 생생한 현실을 연속성 있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들은 억압 속에서도 주체성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탁월한 사상가이자 지도자로, 식민지 집단학살이 1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도 그들의 말을 통해 인간 영혼의 가장 취약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일면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이 독백들은 가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안전과 존엄, 그리고 평화가 인류의 국제적 의무가 되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목소리들이 실재하고, 진실하며, 이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세계의 주목뿐만 아니라 단호하고 지속적인 행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읽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아슈타르 극장 드림

#1 아흐마드 타하

2024년 11월 12일

세상에 남기는 나의 마지막 메시지

난 이주, 특히 불법 이주를 누구보다 반대했던 젊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고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게 삶의 낭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부족, 낮은 소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끝없는 전쟁을 이유로 말이죠. 이주로 인해 가족, 친구들, 소중한 시간, 젊은 시절과 생기를 잃어버리는 등 온갖 결과와 손실을 겪게 되지만, 우리 위 세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힘과 생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난 어떤 형태의 이주든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친구든 아니든 간에 모두에게 이주해서 새로운 고향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불잡을 기회를 주지 않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찾으라고요. 우리의 조국과 이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가족, 친구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했고,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친구들의 살점을 모아 묻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처참했던 순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을 때 헬리콥터 한 대가 와서 우릴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지만 아빠가 총에 맞았습니다. 아빠는 우릴 향해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하고 소리쳤어요. 피를 흘리면서요. 우리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아빠를 일으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을 테니까요. 나는 아빠 옆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아빠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나도 몇 번이고 죽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됐고 내 안위도 걱정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헬리콥터는 떠났고, 우리는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신께 감사하게도, 40일을 입원한 뒤 아빠는 괜찮아졌지만 이제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도 모두가 당신이 죽는 걸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신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고향은 가족이고, 안전이며,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두에게 필요한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주를 생각합니다. 가족과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슬로건이나 뉴스 기사나 조언 따위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본 것, 내게 일어난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고, 난 그 누구도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린 가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아슈라프 아 소시

2024년 11월 11일

가자여, 내 마음에 깊이 팬 상처여, 소위 인도주의 옹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살당하고 있는 땅과 사람들이여!

죄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 노인들이 학살당하고, 병원과 학교, 문화와 예술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도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꿈은 사라졌고, 우리의 미래는 파괴되었으며, 우리의 에너지는 소멸되었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고갈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세상이 말하는 인류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쓰고 있다, 집단학살과 인종 청소,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강제 이주가 400일째를 맞은 오늘!

나는 이집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1948년 나크바 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간신히 이곳에서 피란처를 찾아낸 후에.

나는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떠올린다. 할아버지가 쫓겨난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청춘을 회상하곤 할 때 할아버지 눈에 맺혀 있던 그 눈물과 한숨 뒤 숨겨진 비밀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어제는 나의 조상들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현재다. 오늘 나는 내 미래가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을 겪지 않기를, 한숨과 눈물로 아이들에게 가자의 새로운 나크바를 들려주는 일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파트를 사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엄청난 기쁨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퇴근 후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가 손수 작업을 마무리하곤 했던 일을!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민하느라 몇 날 며칠을 보냈던 일을! 타일의 디자인과 재질을 고르느라 모든 세라믹 쇼룸을 찾아다닌 일을! 페인트 색과 조명 디자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던 일을!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꾸리기를 고대하던 날들을!

점령군이 모든 거주지를 절멸하고, 죽음과 파괴의 폭탄으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폭탄들. 나의 형제를 앓아 간 폭탄들은 지금 나에게 돌아와 내 친구들과 가족들, 이웃들의 생명을 훔치고, 나의 기쁨과 삶을 향한 긍정적 시선마저 앓아 간다.

이제 나는 평생 집단학살의 충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이 영향은 세대를 거듭해 이어질 것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가자에 대한 세세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밤, 나는 가자의 거리와 그 풍경을 회상하고, 마음속으로 그곳에 돌아가려 애쓴다. 거리의 세세한 모습, 내 사무실, 동료들과 나누던 모닝커피의 맛과 아침 식사를 떠올린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일, 옛 기억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국제사회와 소위 인도주의 공동체가 가자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삶과 집, 재산과 기쁨을 약탈한 이 억압적인 적에게 목줄을 채우길 바란다.

#3 알라 하자즈

2024년 11월 11일

나는 가자 지구 사람 스물아홉 살 알라입니다.

나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 안전과 평화, 평온 가운데 사는 것.

나는 타렉과 결혼하고 4년 뒤 달덩이 같은 딸 마리암을 선물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딸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따뜻한 집을 모래 위에 세워진 작은 텐트로 바꾸어놓았고, 허기와 공포, 그리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추위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마리암은 전쟁 중에 첫돌을 맞았고, 12월에 두 번째 생일을 맞을 것입니다. 난 텐트의 추위나 우리에게 강요된 굶주림으로부터 딸을 지켜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점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닿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피해 여러 번 피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쫓겨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예전에 난 평화 속에 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꿈은 그저 살아남는 것뿐입니다!

오늘 세계가 우리의 고통 앞에서 계속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다면, 이 메시지로 당신에게 닿은 우리의 목소리는 내일이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우리 가족이 모두가 순식간에 잊어버릴 숫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은 영혼들이고, 우리에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세계여.

#4 암자드 아부 야신

2024년 11월 10일

내 마지막 편지…… 정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난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질 예수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용서할 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태초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세계는 자기들의 모든 죄책감과 분노를 우리에게 전가해.

태초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고통받고, 떠돌고, 죽을 운명이야.

누구도 예외는 없어. 우리 중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도, 가장 악한 자도, 심지어 예언자도. 400일이 지났어. 그동안 난 자신들이 겪는 일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아이들을 봤어. 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어. 난 또 생에 매달리는 아이들도 보았고, 수많은 주검과 희미하게 남은 생명도 보았어.

세계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뜨고 보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눈을 감기를 선택한 거야. 무지는 진실보다 나으니까. 하지만 이 글을 보고, 듣고, 읽으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들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수백만 개의 별이 하늘을 밝혀도 폭격당한 채 잔해 아래에서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어.

지난 10월 이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몇 세기가 지난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어. 이 전쟁이 끝나면, 나 스스로를 다시 인간으로 부를 용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으려 해도, 나는 저항해. 난 우리가 견디는 이 고통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몇 달 전 옆 학교가 폭격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 아직도 그때의 죽음과 피냄새가 나. 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몸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어. 몇 분 후 운동장은 인간 몸 조각들의 산이 되었어. 그 시간 동안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어.

나는 무대에서 함께 놀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잡은 거지, 떨어져 나온 팔과 다리를 잡

으러던 게 아니었어. 아이들의 사지는 전선과 함께 땅바닥에 흩어져 있어.

마치 마르기를 기다리는 빨래처럼 아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어.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차분해졌지.

세계의 지도자들은 모두 말했지, 이 전쟁은 멈춰야 한다고. 그리고 나도 그들 모두를 믿어. 내가 손이나 다리를 들어 올릴 때나 시신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을 믿어.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그들의 말을 지난 1년간 믿어왔고, 지금도 믿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해.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니까. 인권과 세상이 그토록 말해온 그 모든 원칙들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 오직 강한 자들, 그들이 원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지. 그리고 우리같이 불운한 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

#5 이합 알라안

2024년 11월 8일

나는 항상 조용히 말해왔습니다. 침묵하면서도 비명을 지르고, 차분히 내 감정을 표현하며, 크고 작은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겐 쉽습니다. 난 모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뻐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지진, 홍수, 허리케인이거나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나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전쟁에서, 난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멈췄습니다. 내 삶에 기여했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 모든 힘과 폭력을 다해서 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과 함께 겪고 있는 이 모든 소음과 정신적 파괴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그 평온한 삶이 무슨 소용일까요?

전쟁 전에는 내 삶을 내 취향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이나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건 무엇이든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난 연극과 음악을 사랑했고 화장품과 향수를 팔았어요. 향수 병, 화장품, 음악, 무대 사이를 나비처럼 오가며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전쟁이 시작됐고,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야망들은 포탄과 미사일, 총알 소리와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조화도 없이 장작과 물을 모으는 일과 강제 이주 사이에서 나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차분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의 얼굴에 대고 소리칠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겁니다. 내 문제는 온 우주, 세상, 사람들, 선과 악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사람이 자신과 자녀의 집이 폭격당하는 걸 관찮다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인간성이고, 무슨 인권이고, 무슨 헛소리입니까?! 모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난 숨 쉬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조차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바다의 물고기조차 내가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속였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정말 모두가 우리를 산 채로 도살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생양이 쓰러지자, 모두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친척이 낯선 사람보다 먼저, 친구가 적보다 먼저.

난 처음으로 적에게조차 속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범죄자이고 무자비하며, 우리의 죽음과 고문에 굶주려 있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이 모든 걸 파괴하

고, 억압하고, 부당하게 불태우고, 짓밟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수천 년 동안 굳어진 갑옷과 같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지옥이 가자 지구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가자가 되었습니다.

난 이런 전쟁 속에 살게 될 거라고, 혹은 내 삶이 이렇게 미친 방식으로 엉망이 될 거라고 상상해본 적은 없어요. 세상에 혐오, 위선, 속임수, 배신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결코 몰랐어요! 그럼에도, 나는 세상 그 누구도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겪은 일의 4분의 1만큼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간의 전쟁 이후, 이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니까요. 난 이제 내가 속한 이 세상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에 더 끌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말을 건다면, 오직 헛소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런 세상을 다루는 데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갖 언어로 세상에 말 걸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수치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저에게 누구누구 대통령이나 장관을 존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 모두는 겁쟁이이고, 난 겁쟁이와 대화하는 걸 명예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끝.

#6 타메르 나젠편

2024년 11월 11일

혼란, 현기증, 끝없는 두통.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마치 소용돌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고, 난 완전히 굴복했다. 날 울게 하는 순간들과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순간들처럼, 달콤한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이 뒤섞인다. 오, 신이시여, 나는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어떻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어나는 건가요?

삶은 이런 방정식이 되어버렸다. 나, 오로지 나. 잠에서 깨고 잠들기를 반복하지만 밤낮을 구분할 수 없고, 하루하루는 서로의 반복된 판본처럼 똑같아 보인다. 비가 왔다가,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길 바라. 하지만 그 안전한 곳은 이제 멀리 있고, 우리는 지쳤고, 길은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짐이 될 정도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짐이 되었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고,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방해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다. 내가 배운 것은 원이 좁아질수록 더 순수해진다는 것이다. 더 많이 갖는 건 그저 짐일 뿐이고 때론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하지만 난 궁금하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끝나지 않는 만우절 장난인가? 깜짝 카메라 쇼 안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제발, 그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억압당하지만, 아무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애도에 지쳤고, 사소한 것들을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텐트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아마 모를 것이다. 내가 알려 주겠다. 텐트는 퐁퐁 얼어붙는 추위와 굶주림을 뜻한다. 텐트에서 열 명과 함께 자야 하는데, 반은 안에, 반은 밖에 있어야 한다. 새벽녘에 눈을 뜨면 태양이 짹짹 내리쬐고, 파리가 피부를 갉아먹으며 꿈을 짓밟는다. 밤의 추위는 모든 걸 잊게 한다. 잠깐이라도 따듯해지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텐트는 바로 그런 곳이다. 또, 텐트 안에는 비밀이 없다. 밤에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아침이면 피란촌 전체가 알게 된다.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거의 한 가족처럼 산다.

아침이 밝아오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 살아남기 위해 약간의 빵과 16리터짜리 물통 하나, 그리고 어둠을 견뎌낼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 가자 지구에서 잠들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제발, 누가 좀 깨워달라!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깨어 있는 것인가?!

피가 낭자하고 머리, 다리, 팔 같은 것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걸 보았다. 굶주린 아이들,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들도 보았다. 가는 곳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마치 심판의 날처럼 사람들이 뻗뻗하게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속으로 터뜨렸다. 아니, 이건 꿈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 고통 받고 있는 건지 말해줄 누군가가 있을까?!

400일, 하루하루가 이야기였고, 하루하루가 상실이었고, 하루하루가 그리움이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두에게 충격이 닥쳤고, 그 후로 아무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분석가들은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이전보다 더 암울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식량과 음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흠치고 사재기할수록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낳았고,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속임수, 도둑질, 불의, 사기로 쌓아 올린 생존은 이제 더는 의미가 없다.

날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고,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통과 슬픔도 커져만 간다.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 매일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도 안타깝게도 이제 아무도 희망을 품지 못한다. 희망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거의 벌거벗은 몸, 굶주린 배, 지친 마음, 상처 입은 가슴, 부끄러운 상황뿐인 곳에 홀로 남겨졌다.

#7 라완드 자아루르

2024년 11월 11일

매일 아침은 낯선 고통과 함께 시작된다. 거리와 무기력함의 고통. 나는 자유롭지만 죄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 영혼이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는 것처럼. 매일 아침, 나를 뒤흔드는 소식에 잠을 깬다, 스크린을 통해 내게 닿는 폭발음들과 함께.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날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내게 닿은 건 안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난 울부짖음과 흐느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혼돈을 들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다가 눈물에 목이 멘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우리를 폭격했어, 아가, 그리고 네 아빠는…… 깨어나질 않아. 신께서 구해주시기를.”

아빠의 머리 부상은 심각했다. 아빠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고, 기억을 잃었다. 내가 언제나 강인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아빠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몸매, 삶의 세세한 일들도,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도 잃어버린 채 갇혀 있었다.

매일의 전화는 무거워져갔다.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지만 아무도 진정 괜찮지 않다는 걸 안다.

기억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사람들의 삶이고, 아이들의 꿈이며, 평화로운 하루를 갈망하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희망이다. 전쟁은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고, 평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들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과 우리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희망과 기도를 나누어주시기를. 아마도 세상은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리합 후자즈

2024년 11월 13일

강제 이주와 함께 가장 단순한 권리를 향한 갈망과 향수가 커져갑니다. 나는 남쪽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으로 쫓겨났고, 매번 적응하려 노력할 때마다 기억과 갈망과 향수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쫓겨날 때마다 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나고, 우리는 한 가족인 것처럼 일상을 공유합니다, 사생활 같은 건 없으니까.

이 점령은 우리를 내버려두기를 거부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우리와 싸웁니다. 난 가장 단순한 음식이 그립습니다! 한때 '코치'라고 불렸던 나는 예전에는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곤 했지만, 이제 물통과 빵 트레이를 빵집에 나릅니다. 여전히 적응하려 애를 씁니다!

오 세계여, 이 무자비한 점령과 맞설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인류애는 어디 있습니까?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랍의 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할 이 있습니까?

#9 사미 알-자르자위

2024년 12월 11일

나는 사미 알-자르자위입니다. 가자에 사는 한 아버지로서 안전과 안정을 찾아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자 지구의 중심부에서 온 서른 살 청년입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누구나처럼 내 삶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전쟁이 와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전까지는요.

2023년 10월 9일, 위기의 절정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없는 시기에 로켓 소리, 폭격, 파괴와 폐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죽지 않는다고 알려주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꿈꿨던 것처럼 딸의 탄생을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년을 들여 사랑으로 지은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잔해 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피란처는 겨울의 추위나 여름의 더위로부터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텐트뿐입니다. 우리는 음식, 약, 기본적인 생필품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가혹한 조건 아래 이 임시 텐트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텐트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립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희망이 우리의 삶을 돌려주고 내 어린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리라고 기다리면서.

나의 아내 투라야는 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안정성을 상실하면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실업자가 되어 수입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손길을 찾고, 우리가 잃어버린 안전과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10 수주드 후세인

2024년 11월 11일

가자 지구 주민의 운명은 탈진과 고통이었고, 길고 긴 고난의 날들을 살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고, 하루의 끝에 평화로운 순간을 바랐지만, 돌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 가자 주민 대부분은 점령군이 안전 지대라고 명명한 지역을 향해 자신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과 나는 삼촌들, 이모들과 함께 가자 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로 갔습니다, 공습과 군용 차량의 진격, 비행기 굉음, 심지어 대피소를 폭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초기 며칠 동안 우리는 “내일이 되면 돌아갈 거야” 하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옷, 음식, 침구 같은 필수품이 필요할 때면 우리는 “집에 가면 다 있어. 내일이면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달을 땅바닥에서 담요로 만든 임시 매트리스 위에서 자며 공포, 추위, 불확실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긴 밤이 그저 임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명이 넘는 우리 가족은 똑같이 가혹한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불을 피우고 그을음으로 검어진 음식을 요리하고 화덕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처음으로 폼 매트리스에서 자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날 진정한 잠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난 평화와 고요함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고,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혼자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대해 시위할 사치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크바에 대해 들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직접 겪었고, 삶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점령군은 칸 유니스를 위험한 전투 구역으로 선포하며 피난처에 있는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게 이곳을 떠나 라파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그들이 안전 통로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갔어요. 탱크들 사이를 걷는 공포, 병사들의 조롱하는 시선, 가족과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조금 가진 것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는 완전한 절망적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물만 남긴 채로 칸 유니스를 떠났어요. 슬픔이 내 마음을 집어삼킬 때까지 울었습니다. 우리는 텐트로 다시 옮겨 갔습니다. 첫날 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렸고, 난 밤새 텐트가 물에 잠기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수없이 지친 날들이 지난 후 편안한 잠을 간절히 원했지만 상념도

슬픔도 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똑같이 고통스러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나 스스로를 구하고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 한가운데서 가족과 함께 머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미룰 것인지. 모든 것이 파멸을 의미하는 것 같았기에 떠나는 것이 구원이 되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긴 몇 달이 지난 후 2024년 3월, 나는 눈물로 뺨을 적신 채 가자를 떠났습니다. 어머니께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를 키우며 청춘을 보내고, 삶의 고난에 맞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애쓴, 그 헌신적이고 다정한 여인에게. 우리의 성취에 그녀의 눈이 자부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전쟁은 그 빛을 꺼뜨리고, 그녀의 몸을 집어삼키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고생의 주름을 얼굴에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안녕을 고하며, 나는 그녀의 품에 녹아들어 이 잔인한 세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평생 사랑했던 가자를 기억에 담은 채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움 쿨숨의 음악을 틀어주는 이집트인 운전기사와 함께 카이로의 불빛 가득한 거리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가자가 내 마음속에서 더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가자. 어떻게 그렇게 회색빛이 되어버렸을까요? 움 쿨숨의 목소리는 저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움 쿨숨은 언제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고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면, 친구들은 제게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가자를 떠났습니다. 전쟁은 수년간 그려왔던, 오래 계획해온 출발을 막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는 어떻게 작별할지, 어떻게 다시 만날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전쟁은 이런 꿈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친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친구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머니, 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나 할까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며 울다가 웃습니다.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된 이 사진들은 이제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각각의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립니다. 왜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는지, 어쩌서 삶은 세상이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는지. 왜 우리는 전쟁이라는 오버사이즈 옷을 입는 대신 사소한 위기를 겪을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거부권조차 부정당할까요?

나는 스스로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삶을 경험했고, 그 의미를 알았다고. 하지만 전쟁 속에서 눈을 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름다운 가자도, 수많은 시도로 가득한 삶도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나는 알았기에, 이를 비웃어봅니다! 삶이 내게 허락한, 내가 겪어온 이 엄청난 행운이 대체 무엇인지!

전 세계는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채 살아가지만 세계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조차 우리가 갖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존엄한 삶, 교육, 건강, 기쁨, 여행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다른 곳에 사는 아이들보다 결코 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이 어린이들은 모든 역경에 맞서 굳세게 서 있는 이 세대의 본질이죠. 나에게 청년들, 아이들, 여성들이 있는 가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여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가진 질문, 공포, 걱정, 외로움과 함께 홀로 살아갑니다. 생존은 환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공포는 전쟁 못지않게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난 뉴스가, 소리들이, 가족과 전화가 되지 않는 일이, 또는 가족들 근처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긴급 보도가 두렵습니다. 친구들이 긴 시간 오프라인 상태인 게 두렵습니다. 통신 두절 때문에 가자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 내가 겪은 일은 당신께서 겪은 일에 비해 작다고 이따금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견뎌낸 그 고통을 상상하면 분노가 날 삼켜버리고, 내 심장은 떨립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가자에서 보낸 힘든 밤들의 기억은 날 화난 사람, 날카로운 말투에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자'라는 단어를 자부심과 존경으로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난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고 모든 관점을 환영했던 이전의 나와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전쟁이 날 바꿨어요. 전쟁은 내가 알던 사람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살았고, 생각했고, 목격했던 것은 아무리 말해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가자 주민들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괴물 같은 점령에 맞서도록 내던져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재된 비인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신화로 빚어지는 경험. 언젠가 가자 주민들은 전 세계를 향해 소리칠 것이고 평화를 되찾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준비해야 하고, 오랜 고독의 결과에 대해 가자 주민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11 모하마드 카셈

2024년 11월 15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내가 2010년에 쓴 독백의 마지막 문장이다.

한때 나는 마음이란 누그러질 수 있고, 사람들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거짓과 위선, 가식으로 가득 찬 비겁한 세상의 추한 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때 나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쓰고 싶었다……. 고통 이후의 아름다운 말들……. 우리 나라가 억압과 인종차별, 박해 가운데 견뎌온 고통 말이다. 우리의 삶은 어두운 날들로 가득하다……. 이주, 재앙, 좌절, 그리고 굶주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권리가 없는 것인가? 이 세상의 젊은이들, 청년들, 이 땅 위를 걷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누구든 간에 주어진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는 없는 것인가?

나라를 떠나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어두운 포위망이 점차 조여오고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지고 웃음소리가 찾아들자 나는 생각했다. ‘발밑에서 길을 잃기 전에 지금 떠나자.’ 이별의 고통은 타들어갔고, 망명은 덴 것같이 아팠고, 어머니의 마음은, 아, 찢어졌을 것이다…….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너무 오래 떠나 있어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곁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꿈을 평생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모른다. 내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2016년에 모로코에 도착한 이후, 가자에는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 마지막은 2022년이었다. 가자에서는 2년마다 전쟁이 터진다. 폭격이 계속된다. 처참하다……. 치고 때리고, 치고, 또 때린다.

전쟁 중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괜찮아……. 우리는 잘 지내.” 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사람들은 보통 망명 중인 자식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망명자들은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한다.

10월 7일 이후로 나는 악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매번 “하느님, 제발 이 악몽에서 깨

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악몽은 점점 더 끔찍해질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가자의 악몽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낀다.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가족들은 늘 나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사람들은 달린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안고, 어떤 이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또 어떤 이들은 매트리스를 들고 달린다. 모두가 달린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더 멀리 갈수록 더 안전할 것이라고 느낄 뿐이다.

나는 우리 가족이 강제로 이주당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앓-사파타위에서 해변으로, 해변에서 유엔 학교로, 유엔 학교에서 셰이크 라드완으로, 셰이크 라드완에서 아부 이스칸다르로. 이동할 때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따랐다. 어느 날,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사흘 내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자가 완전히 말살당하는 느낌이었다.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은 살아 있을까? 깨어 있을까? 자고 있을까? 먹고 마시고는 있을까? 밤은 낮이 되고, 낮은 밤이 되었다. 나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죄수처럼 방 안에서만 지냈다.

밤중에 전화가 울렸다……. 누나의 전화였다. “우리 괜찮아.”

나는 기뻐 울음을 터뜨리며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뛰어다녔다. 그 말을 믿기 위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

통화가 끝난 뒤,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밤중에 전화가 울렸다……. 나는 밤에 울리는 전화를 제일 싫어한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누나가 말했다. “인터넷에서 뇌졸중 증상 좀 찾아봐.”

나는 놀라 되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눈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졌어. 지금 밤 12시인데. 구급차도 없고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탱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누군가 내 손과 발을 묶고 숨을 막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력했고, 약했다. 부어오른 눈으로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나는 힘이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소뿐이었다.

“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호소만큼은 들어주시겠습니까? 바라보기만이라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나라 사람이고, 우리 나라에는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도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나라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까요?

이 나라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기 전에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많이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12 마흐무드 아부 샤아반

2024년 9월 11일

상실은 극도로 힘든 일이며,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형부, 조카, 손자 모두를 단 하루 만에 잃는다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느 누구도 그 상실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족이 주는 온기와 다정함, 그들의 목소리,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 달콤한 추억, 집과 그들이 묻힌 무덤마저 잃는 일이다. 찾아가볼 수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엇이 필요할 때면 내 곁에 있어주셨던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거기에 계셨고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내게 형제 이상이었던, 형이 그리다. 형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었고, 곁에서 내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다. 나의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았던, 인자한 누나가 그리다. 가족 전부를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가?

2023년 10월 18일, 가족들이 지내던 누나 집이 표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때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도 무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뿐이었다. 물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너무 무서웠다.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신께 기도했다. 그 지역에 사는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그곳에 가서 가족들이 잘 있나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누나 집 근처에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모는 표적이 된 곳이 누나 집이 아니라 집 뒤쪽이라고 말해주었다. 이모는 나를 진정시키려 했고, 나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형과 만나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각자 하는 말이 엇갈렸다. 누구는 가족들이 다쳤다고 했고, 누구는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다. 여섯 시간이 지나자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이모가 간신히 그 지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충격이 찾아온 건 그때였다. 이모는 순교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점령군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가족들을 묻은 지 며칠 뒤, 불도저가 가족들이 안치된 묘지를 밀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점령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몇 주 뒤, 우리가 살던 집마저 완전히 무너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내 삶과 달콤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던 집. 구석구석이 내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집 말이다.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까지도 나는 전쟁이 끝나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까지도 나는 가족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이 너무 그립다. 나는 결혼해서 가족들, 특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아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본 건 2023년 6월인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몇 년 만에 나와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여 부모님을 만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 떠나기 전 부모님은 “하느님의 뜻대로 네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면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셨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멈춰 세웠고,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 갔다. 가족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결혼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눈빛으로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주 많이 사랑해요.”

#13 마흐무드 발라위

2024년 11월 19일

세상의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불의, 죽음, 침묵은 이제 그만!!!

마음속에 단 한 조각의 인간성이라도 간직한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자의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 상황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전쟁은 단순한 폭격이나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전쟁은 집단학살입니다. 이 무자비한 전쟁은 우리 모두를 죽이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는 폭격에서 여러 차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집이 폭격당해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집도 폭격당했습니다. 결국 텐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의 인간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전쟁과 쏟아지는 피의 학살을 멈춰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그만 죽이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렇듯이요!

우리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자녀이고,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검은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폭격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포위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촌, 친구, 가족, 친척, 그리고 순교하거나 부상당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닿길,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14 마흐무드 엘-투르크

2024년 11월 13일

우리는 아직 살아 있지만, 우리 안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살아 있었고, 서른 살이라면 품을 법한 희망과 꿈, 끝없는 성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꿈은 빼앗겼고 야망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남은 것은 잠들지 않는 기억들뿐. 그것들은 매 순간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길로 내몰렸습니다. 여름의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막아주지 못하는 나일론 천으로 덮인 허름한 텐트에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감과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모으고, 그렇게 피운 불과 연기로 빵 한 덩이를 구워 허기를 면하는 고대 원시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루, 몇 달, 혹은 1년의 순간순간을 열 배의 고통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나요? 가자에 산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고통을 곱절로 견뎌내는 일입니다. 공포, 폭격, 굶욕, 반복되는 퇴거. 작별 인사도 없이 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일. 누군가 강제로 그들과 당신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전쟁이 당신을 소진시키고 내면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들, 역사가 후대에 전할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목격해왔고,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전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얼굴은 일찍 늙어버렸습니다. 창백하고 지치고 소진되었으며, 삶의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단 하나,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 그 회색빛 잔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전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 말을 듣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홀로 두지 마세요. 우리는 사망자 통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 권리, 끝없는 전쟁의 고리를 끊을 권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15 마흐무드 나젬

2024년 11월 11일

나는 포위된 가자에 살고 있는 마흐무드입니다. 전쟁이 우리 집과 꿈을 무너뜨린 뒤로 아이와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폭격과 파괴의 소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이 글을 씁니다. 아이의 눈에서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과 어떤 평안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간신히 남아 있는 희망을 봅니다.

가자는 그저 어떤 곳이 아닙니다. 가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우리는 가자가 평화와 안전 가운데 존속하기를 꿈꿉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과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이들에게 보냅니다. 행동해주세요. 우리를 구하고 이 고통을 끝내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안전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을 누리게 해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와 가자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세요. 슬픔으로 지친 이 땅에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성과 정의가 그 어떤 전쟁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갖고 여기 있습니다. 제발 가자를, 우리의 어린 시절을, 우리의 미래를 구해주세요.

#16 히바 다우드

2024년 11월 19일

스스로가 영혼 없는 몸처럼 느껴진다!!!

전쟁 전 내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내가 늘 꿈꿔왔던,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있었다.

남편과 사랑으로 지은 집이 있었고, 커리어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 악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시작은 우리 집의 폭격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니가 순교했고, 남편은 심하게 다쳐 한 달간 기억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그 악몽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내 영혼의 동반자였던 언니, 형부, 조카들까지 잃었다.

나는 이 고통에 맞서보려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집이 사라졌고, 이 책임을 짊어지려면 강해져야 했다.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남편은 다쳤고, 나는 이 잔혹한 세상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네 번이나 포위되었고, 매번 기적처럼 빠져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폭탄이 우리가 있는 집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나를 끌어냈다. 그들은 부상당한 남편을 데려갔고, 나는 두 아이와 함께 남부로 걸어가야 했다. 그때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나는 넘어졌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탱크과 군인들의 바닷속으로 걸어갔다. 그들 중 누구도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절반쯤 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백린탄을 투하했고, 우리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달렸다.

우리는 남부에 도착했지만, 나와 아이들은 잘 곳도, 옷도, 먹을 것도 없었다. 재앙 그 자체였다. 남편의 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였고, 여러 차례의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 애쓰고 애쓴 끝에 우리는 이집트로 이동할 수 있었고, 남편은 첫 귀 수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다. 그때 나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쉼을 누린 적이 없다.

잠에 들려 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도,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다. 잠이 들어도 나는 악몽에 시달린다!

그리고 가장 큰 상실이 찾아왔다. 그 상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상실 앞에서 내가 잃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게 느껴졌다. 나의 아버지가 전쟁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암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암이 온몸으로 퍼져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인하셨다.

그때 나는 세상과 거기 속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쉽게 말해 (내 감정은 완전히 지워져버렸다).

나는 이제 이집트에 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려 애쓰고 있지만, 나에게 영혼도, 삶에 대한 그 어떤 열정도 없다. 전쟁이 내게서 빼앗아 간 그 삶 말이다!

#17 야스민 자아루르

2024년 11월 13일

계절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 계절을 이루는 익숙한 순간들을 살지 못했다. 겨울에 오렌지를 먹지 못했고, 여름에 항구에서 파는 구운 옥수수를 사 먹지도 못했다. 올리브조차 수확되지 못했다. 탱크에 밟혀 땅에 짓눌러졌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무덤에도 꽃이 피지 않았다. 봄이 두려움에 잔해 아래 숨어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모두 무사해요,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히 구출됐어요. 지금은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에 있어요. 진정하세요, 살만, 나자, 그 남편 마흐무드, 둘의 아들 루아이, 딸 와르다, 아실, 아나스, 바크르, 아부 아나스, 아부 잘랄, 움 잘랄, 아흐마드, 그의 갓난아들 오사마, 알리, 아부 하산, 하산, 자키아, 마날, 그리고 그 갓난아들 아미르만이 순교했을 뿐이에요.”

“모두 무사하다”라는 말,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 살만의 아내를, 나자와 마흐무드의 아이들을, 아나스의 부모님, 그리고 ……

정말로 무사했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잔해 아래에서 조각난 채 모습을 드러냈고, 곧 임시 무덤에 묻혔다. 그렇다, 임시 무덤이다.

놀라운가?

설명해보겠다. 우리는 그들을 묻으러 공동묘지에 갈 수 없다.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에, 병원 부지에, 길모퉁이에, 골목에 묻혔다.

억압과 어둠이 끝나면 그들을 파낼 것이다. 그들을 땅에서 꺼내 이별의 괴로움과 가슴속 슬픔을 되새기고, 그들이 돌아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죽었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고통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끝나 지나가버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북부의 굶주림, 남부의 갈증, 쉴 곳 없는 추방자들,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현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다.

안전도 없고, 평화도 없다.

어디에나 이주당한 것뿐이다.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변화는 불가능한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우리는 밤마다 짐에 짓눌리고 검은 근심과 깨어 있는 악몽에 얼룩진 베개에 몸을 기대
것인가?

변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쓰디쓴 진실 사이에 누운 우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에 갇혀 낮과 밤의 무게
에 짓눌린 채 뒤척인다.

오, 지도자들이여, 우리의 영혼은 늙어버렸고 청춘의 향기는 사그라들었다. 얼굴은 창
백해졌고 고민에 차 있다.

하느님께,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절망을 아뢰입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피로를 호소합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폭정과 불의에 맞서 울부짖습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 그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심장은 더 이상 삶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라던 것은 다 꺼져버렸다. 우리는 다
만 안개가 걷히기를, 숨겨진 빛이 1년이 넘는 기나긴 어둠 끝에 우리의 눈을 찌르기를
바랄 뿐이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할 것이다.

우리 각자가 문학 책의 페이지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방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우
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각자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러나 전쟁은 끝날 것이고, 시간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진실이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18 야스민 카트베

2024년 11월 19일

안녕하세요, 나는 야스민 카트베입니다. 꿈이 많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여자아이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써두셨기 때문이죠.

나는 야스민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죽음은 나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겁쟁이 야스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2021년 전쟁 당시, 그들은 리말 거리에 있는 앳-쇼루크 타워를 폭격했습니다. 나는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었어요. 파편들이 부엌으로 날아들어 집에 있는 유리란 유리를 다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수피안은 겁에 질렸습니다. 겨우 한 살이었죠.

그 테러를 겪은 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집에서 9일을 지냈어요. 하지만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던 알-칸즈 거리마저 공격당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수피안을 꼭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전 이후, 남편과 나는 어머니의 고향인 러시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권을 얻은 뒤 희망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안전했으니까요. 그러나 곧 망명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적응하지 못했고,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 이후,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10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둘째 아들 유세프를 임신한 지 9개월 차였습니다.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내가 시신 조각들과 무너진 집들을 볼 수 없도록 내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전쟁 개시 첫 달부터 팔레스타인 타워에 있는 우리 가족의 집이 폭격당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산소가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나를 구해준 건 내 세 살배기 아들 수피안이었습니다. 수피안은 나를 꼭 붙잡고 내가 다시 숨

을 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무사하다며 나를 안심시켜주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다들 무사해, 걱정 마, 전화했는데 모두 안전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은 북부에 머물렀고 남편 가족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끊기고 전화도 오지 않을 때 느꼈던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자발리아에서 학살이 있었고,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집이 무너져 시가 식구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폭탄이 식구들 옆집에 떨어졌고, 식구들은 다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세르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곳마저 그들이 안에 있을 때 폭격당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살만은 겨우 열한 살이었는데, 폭발의 충격으로 공중에 내던져졌습니다.

가자에는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내내 가자에서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마취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안-나세르 병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보았습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앳-시파 병원에 진입해 학살을 저질렀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진통 중이었고, 나 또한 앳-시파 병원에서 출산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라파에 있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자국민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국경에 있었고, 나는 병원에서 출산 중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나는 출산했고,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세프를 얻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스민, 미안하다, 아직 대피를 안 시켜줬어. 아마 내일쯤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고 약 잘 챙겨 먹어, 곧 갈게.” 나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전쟁 한가운데서 학교에 앉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엄마! 나는 엄마에게 “엄마, 나 애 낳았어” 하고 말했어요. 가자 전체가 제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에 일주일 있었는데,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막 도착한 엄마가 남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아빠와 형제자매들은 북부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도로를 장악해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고 계속 이동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 경계를 건너려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거리에 남겨진 순교자들의 시신과 그 조각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남편

가족들을 걱정했지만,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은 남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기에 러시아 대사관이 러시아인 철수 작전으로 가족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전쟁에서 구해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되찾았죠. 이스라엘군의 명령에 따라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한 사람씩 줄지어 행진해야 했다는 시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자에는 집이 파괴되거나 폭격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고, 아들은 한 살이 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는 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 목소리는 '이 나라는 망했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른 목소리는 '가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가자에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이 잔혹한 전쟁에서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내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러시아를 고향이라 여기고 팔레스타인과 가자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아랍어도 못 하는 외국인의 자식들처럼 자라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가자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가자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해주시고, 모든 순교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아멘.

#19 알리 아부 야신

2024년 11월 8일

세상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

- 엄마가 소리쳤다. “아이고, 세상에! 셰이크 양반, 우리 아들이 지금 손에 악기를 들고 집에 와서는 우리에게 수치와 망신을 주고 있잖아!”
- “내버려두시오, 후리야, 좀 하게 놔둬. 나도 셰이크가 되기 전 젊었을 때 마을에서 답케 무용단도 이끌고 ‘아르쿨’도 불었지.”
- “밖에서 배워온 게 아니라 지 애비한테……”
- “뭐? 뭐라고? 끝까지 말해보지, 왜 말을 삼켜?”
- “안 삼켰어!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 아니, 근데 알리, 우드? 감히 우드를 가져와?”

이것이 ‘우드’(전통 아랍 악기)가 앓-샤티 난민촌에 처음 들어왔던 순간일 것이다. 나는 열세 살이었다. ‘우드’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싶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유엔난민기구에서 겨울 구호물자로 옷과 함께 받은 담요로 감쌌다. 꼭 시체를 숨기는 기분이었다.

나는 열세 살 때 점령된 농촌의 우리 땅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우드’를 샀다. 당시 가격은 200 요르단 디나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나는 열 살 때 일을 시작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앓-샤티 난민촌을 떠나 데이르 알-발라로 피란했다. 2023년 10월 11일이었다. 우리는 갈아입을 옷을 한 벌만 챙겼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드’는 옷장 맨 위에 올려두고, 폭격의 진동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그 아래에 옷을 수북이 쌓아두었다. 확실하게 고정해둔 뒤 집을 나섰다. ‘우드’는 내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물건이었다. 나를 포함해 가자를 떠나 남부로 피란 온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 줄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400일째다. 13개월간의 망명 생활. 내 ‘우드’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연주도 노래도 하지 못했다! 400일 중 대부분은 가족, 친구, 이웃,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슬픔으로 울며 보냈다. 전쟁의 모든 것은 사람을 울게 만든다. 아니, 미치게 만든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다 정신을 잃고 미쳐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더 미친 건지 모르겠다. 우리인지,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침묵하고, 한 나라가 말살당하고 있는데도 들고 일어서지 않는 세상인지. 나는 전쟁과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우드'와 목소리를 되찾아 노래하고 싶다. 나는 자주 그것을 연주하는 꿈을 꾸는데, 깨보면 내 손가락이 '우드' 줄 위를 움직이고 있다. 내 '우드'와 내 목소리를 돌려달라!

또 다른 비극은 지난 35년 동안 내가 무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배우로, 연출가로, 작가로, 트레이너로. 나는 연극 일을 멈춘 적이 없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다. 어떻게 400일 동안 공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무대에 서지 못했다! 극장은 내 두 번째 집이다. 나는 가족과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극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 나를 무대로 돌려보내달라! 이스라엘이 모든 극장을 폭격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전쟁만 멈추면, 우리는 거리에서 공연할 것이다! 무대도, 음향도, 조명도, 장식도 필요 없다. 나와 관객, 그리고 거리만 있으면 된다. 점령군이 거리마저 파괴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람에 쓸려가 폭발하지 않은 옥상을 하나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그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고, 나는 폐허를 둘러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을 할 것이다. 그 공연에서 내 '우드'는 음악과 다른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대신해 나와 협연할 것이다. 멋진 생각이지 않은가?

전쟁이 끝나도록 내가 살아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옷장 맨 위에 올려둔 '우드'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옷장 자체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 집 꼭대기 층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친구가 보내준 우리 집 영상에서 우리 아들 암자드가 결혼하여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공연은 반드시 언론의 관심을 끌 것이다. 연극, 파괴, 그리고 어린이, 여성, 청년, 노인으로 구성된 관객. 아름다운 조합이다. 얼마나 장관이겠는가! 관객들은 마음대로 앉아도 되고 서 있어도 된다. 선택지는 많다. 부서진 기둥, 망가진 어린이 침대, 뒤집히고 찌그러진 냄비, 부서진 나무 그루터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멈추고 나를 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집을 세 달 이상 떠나 있었던 적이 없다. 더는 견딜 수가 없다. 나를 내 도서관, 내 세상, 내 극장, 내 '우드', 내 관객들에게로 돌려보내달라. 그 모두가 그림다. 나 자신도 그림다! 400일 동안 나는 길을 잃었다. 나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달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이 전쟁은 대체 끝나기는 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등록 및 후원 Registration & Support

낭독 및 공연을 준비하실 분들은 아슈타르 극장의 말을 확인한 뒤, 극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링크를 통해 [아슈타르 극장](#)에 후원해주세요. [공연 등록 링크](#) & [극장 후원 링크](#)

만든 사람들 Credits

작 Writers

아흐마드 타하, 아슈라프 아 소시, 알라 하자즈, 암자드 아부 야신, 이합 알라얀, 타메르 나젬, 라완드 자아루르, 리함 후자즈, 사미 알-자르자위, 수주드 후세인, 모하마드 카셈, 마흐무드 아부 샤아반, 마흐무드 발라위, 마흐무드 엘-투르크, 마흐무드 나젬, 히바 다우드, 야스민 자아루르, 야스민 카트베, 알리 아부 야신

먼저 읽은 사람 Readers

구자혜 Jahye Khoo, 덩야핑 Yaping Dyung, 명혜진 Myeong Hye Jin, 박수진 Park Sujin, 배서현 Seohyeon Bae, 배선희 Sunhee Bae, 백소정 Sojeong Baek, 양대은 Yang Daeun, 여영은 Youngeun Yeo, 이서연 Lee Seoyeon, 자두 Jadu, 전박찬 Jeonbak chan, 허윤경 Yunkyung Hur, 타리 Tari Youngjung Na,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The Theatre Laboratory: HHD

영한 번역 Korean Translation based on the English version by

이서연 Lee Seoyeon(1-10), 배서현 Seohyeon Bae(11-19)

번역 감수 Translation Review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지연 Jiyoun, 덩야핑 Yaping Dyung

*영역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원본인 아랍어 대본을 참고하여 옮겼음을 덧붙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두 가지 대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azamonologues.com/s-projects-basic>

관련 단체 링크 Support & Follow

이스라엘 문화예술 보이콧 캠페인 모자이크 Korean Campaign for the Cultural Boycott of Israel: Mosaic

www.instagram.com/kccbi.mosaic

이스라엘 학술 보이콧 캠페인 잔물결 Korean Campaign for the Academic Boycott of Israel: Ripples

www.instagram.com/kcabi.ripples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Urgent Action by S.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www.instagram.com/palestineinkore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Palestine Peace Solidarity in South Korea (BDS Korea)

www.instagram.com/pps_kor